# 8장: 예수는 예언(prophecy)의 성취

주제: 예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며,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이 완성된 것.

문제점: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마태와 마가의 주장의 근거는?

## <u>논점:</u>

#### A.마태와 구약성서

- \* 마태는 구약성서의 특정 본문들을 마치 예수에 대한 예언처럼 다루고 있다.
- '예언-성취 형식'의 방법론: 다섯 번 사용

구약성서의 구절을 인용한 후 "예언자가 말했던 것이 성취되었다"고 하는 형식

- \* 그 본문들은 예언( predictions)이 아니다. 그 다섯 구절 어느 것도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
  - 1. 동정녀 탄생이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는가? 아니다.

이사야서에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잉태될 것인가가 아니라,

그 아이의 이름(임마누엘)을 짓는 것에 관심

2.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는가? 아니다.

예수가 이상적인 왕 "다윗의 아들"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주장하는 것

3. 이집트로의 탈출과 귀환이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는가? 아니다.

이 본문은 예언이 아니었다. 이집트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가리킨 것.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고발하는 것이지,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.

- 4.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애곡이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는가? 이것 역시 예언이 아니다.
- 5. 예수의 고향 나사렛이 구약성서에 예언되었는가? 구약성서 안에는 마태가 인용했다는 이 본문이 없다.
- \* 마태가 구약성서를 사용한 것은 증언이며 확신이다. '내부인들'의 확신을 표현한 것.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태는 구약성서를 "파헤쳐"구절들을 캐냈으며, 예수의 이야기가 구약성서 속에 이미 "예시되었다(prefigured)"고 본 것 마태의 인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: "예언의 기적"이 아니라, 그 공동체의 경험과 생각 속 에서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확증 - 임마누엘로서의 예수

#### B. 누가와 구약성서

- \* 누가는 구약성서에서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는다.
- \* 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가 성취했다는 것을 한 가지 방식 이상 으로 선포한다.
  - 1. 누가 이전부터 전해져 온 성취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찬가들을 이용
  - 2.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: 70인역 성서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문체로 기록되었다.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이며 절정이라는 점을 말한다.

- C. 성취의 보다 넓은 틀
  - \* 구약성서에서 중심적인 것: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
    - 1. 율법서 속의 약속과 성취: 가장 큰 주제
    - 2. 예언서들: 정의와 평화의 이상적인 왕에 대한 희망 다른 종류의 왕과 왕국을 향한 열망-"그날이 오면"
  - \* 예수 당시에 이르기까지, 유대인들은 거의 500년 동안 서로 다른 제국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했다.
    - 이런 상황에서, 첫 번 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비상한 힘을 갖게 되었다.
- D. 크리스마스 찬가들의 새로운 의미

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찬가들: 초기 기독교인들의 희망과 성취에 대한 멋진 표현

- 이 세상을 위한 희망, 이 세상의 변혁에 관한 것
- 성취된 약속을 확인
- 빛과 평화의 주제로 끝을 맺는다
- E. 예수는 예언의 성취(prophecy fulfilled)이다
  - 예수는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완성
  - 예수는 율법서와 예언서들에 들어난 하나님의 열정을 결정적으로 계시/성육하신 분

## 평가:

- A. 마태가 구약성서 본문들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을 상세히 밝히고 나서, 그것은 마태공동체의 증언이며 확신이라고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게 결론으로 이끌어 맞추고 있다. 너무 선의적 해석이다.
- B. 기독교 찬가들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시하는 누가의 해석을 저자들은 결론으로 삼는데, 마태공동체의 증언과 확신으로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의 관련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.

# 생각해보기:

- 1. 마태의 구약성서 인용의 문제점과 신약성서 전체에서의 구약성서 인용의 문제점
- 2. 신약과 구약의 관계: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성서는 필수적인 것인가?